

아산뉴스

2005년 10월 17일 (월요일) 제142호

개혁자 정신으로 미래를 창조하자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고장, 서로 믿고 함께하는 도시



발행인: 아산시장/편집: 공보체육과/우편번호: 336-701/주소: 충남 아산시 시민로124(온천동1626) /전화: (041) 540-2020/팩스: (041) 540-2162/http://www.asan.go.kr

아산의 자랑스런 얼굴, 영광의 시민대상

10월 5일 시민의 날 기념식 갖고 5개 부문 시민대상 시상

시는 지난 10월 5일 제11회 시민의 날 시청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예년과 달리 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시민체육대회 없이 축하 공연과 기념식, 시민대상을 시상했다.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된 기념식에서 시민들의 관심은 아산시민대상에 쏠아졌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효행부문 임동희, 교육문화 조영수, 사회봉사 김천수, 지역개발 김우영, 체육부문 김두식 시민에게 영광의 시민대상이 수여됐다.

효행부문 임동희(52세)씨는 열처에서 고령인 조모(90세)와 친부모를 극진히 봉양하면서 정신차체 장애에 시달리고 있는 79세의 백모를 수발하는 등 효행을 몸소 실천하여 시민대상을 수상했다.

교육문화부문 조영수(63세)씨는 봉

화동에 거주, 42년 3개월간 교직에 재직하면서 숭고한 교육관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참교육 실현과 아산교육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을 높이 평가 받았다.

또한 활발한 교육 연구활동과 인성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탁월한 교육행정운영 등 전인교육 실현에 이바지한 참 교육자이다.

사회봉사부문 김천수(54세)씨는 방축중 정육집 안쪽에 2평 남짓한 월세방에 거주하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16여 년간 어려운 이웃들에게 앞장서고 있어 아산시민 대부분이 그의 선행을 알고 있을 정도로 아산의 봉사맨이다.

그가 다녀간 시설, 단체, 복지관, 장애인작업장, 경로당, 비인가시설 등이 70여 곳에 이르고 1,000회이상 발로 찾아다니며 그의 따뜻한 사랑을 전달해 준 시민만도 10,000여명에 이르고



효행부문
임 동 희



교육문화
조 영 수



사회봉사
김 천 수



지역개발
김 우 영



체육부문
김 두 식

있다.

지역개발부문을 수상한 김우영(71세)씨는 방축동에 거주하면서 청소년들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가치관과 윤리관 정립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마을회과 건립을 위해 부지마련에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시민대상을 안았다.

체육부문 김두식(48세)씨는 충남하키편회장으로 선수의 기량향상과 협회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온양한울고와 아산고의 하키팀수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 일본과 대만고교와 정기적 국제교류전 및 훈련을 갖게 하여 스포

츠를 통한 아산시의 명예를 대내외에 널리 알렸다는 점과 하키팀으로 자리매김한 아산에 국제규모의 하키팀장 건립에도 커다란 역할을 담당 한 점을 심사위원들로부터 인정받아 제11회 아산시민대상의 자리에 오르게 됐다.

한편 시 관계자는 시민대상을 수상한 5개 부문의 대상자들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리지역 곳곳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는 시민들이 있기에 밝은 미래, 희망이 보인다고 많은 시민들의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부탁했다.



▲ 豊年農心... 황금들녘과 농부의 마음은(?)

조경수목 식재 이렇게 하세요

9월 15일부터 아산시 조경수목 검사·검수규정 시행

시는 지난 9월 15일부터 아산시 조경수목 검사·검수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규정은 수목의 수종별 품질 및 표준 검사 기준을 마련하여 우량 수목 식재를 유도하고자 제정 시행하고 있다.

아산시 행정구역내 도시개발, 택지조성, 공단조성, 도시기반시설지와 공동주택단지내의 조경시설, 공원 조성, 가로수 식재 등 시산하 각 실·과·사업소 및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모든 조경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 발주하는 조경공사는 초기단계부터 산림복지과의와 구체적인 협의를 마친 후 사업을 추진키로 했으며 검사, 검수 또한 산림복지과에 요청해야 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수목검사·검수의 구체적 인자는 묘목(어린묘목)인 경우 굴취후 장기간 보관하지 않은 것, 잔뿌리(수령)가 많은 것, 묘목의 가지는 사

방으로 고루 뻗고 정아(눈)가 큰 것, 병충해 피해가 없고 묘목에 상처가 없는 것, 묘목의 크기에 미려하여 근원경과 뿌리가 균형(T/R율)있게 발육한 것, 유실수(밤나무, 호두나무 등)는 품종계통이 확실한 것이며 성목은 미적 가치와 조형미가 있어야 하고 이 식이 가능한 나무, 적응성이 큰 나무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금부터 혁신시대, 우수사례발표 장려상 수상!

지난 9월 14일 중남도가 주최한 2005년도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 농기계 대여은행 확대 운영 사례를 발표하여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에 앞서 시는 '시민만족! 아산시 공무원 모두가 혁신하여 달성 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8월 30일 각 실·과 사업소가 참여하는 자체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농업기술센터의 혁신 사례를 최우수작으로 선정, 송남도경진 대회에 참석했다.

한편 시는 이번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장려상 수상을 계기로 지속적인 혁신과제 발굴과 함께 발굴된 과제의 성실한 실천으로 시민만족 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함께해요! 2005인구주택 총조사

인구주택총조사가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된다. 조사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성명, 나이, 거주기간, 거주종류 및 대지면적 등 인구와 가구, 주택관련 총 44개 항목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

이번 우리시 조사에는 공무원을 포함한 480여명이 참여하게 되며 원칙적으로는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해 면담 후 작성하며 면담이 곤란한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로 배부 후 작성된 조사표를 회수하는 방법도 도입되고 인터넷으로 조사표를 작성해 전송할 수도 있다. (단 인터넷 작성은 인구주택총조

사 홈페이지(www.census.go.kr)에 신청해야 됨)

시는 혹시라도 있을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요원 선발 시 신분이 확실한 사람을 채용하고 사생활보호 및 조사자의 두 위반 시 가해지는 처벌규정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자료처리 과정에서 조사내용이 숫자와 부호화로 개인 정보 유출을 철저히 차단한다. 특히 개인정보의 성명은 컴퓨터 입력대상에서 제외되고 자료처리가 완료된 조사표는 일반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장소에서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 시키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는 우리나라의 모든 인구와 주택의 총수는 물론 개별특성까지 파악해 각종 경제·사회 발전계획의 수립, 학술연구 등에 제공되어 국가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국가발전의 근간이 되는 귀중한 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조사가 생명이다.

시 관계자는 2005년 1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국가사연인을 강조하면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했다.

조사 항목

▷ 인구 : 성명, 성별, 나이, 가구주의와 관계, 교육정도, 종교, 남북이산가족, 혼인상태(전수) 아동보육실태, 5년전 거주지, 활동제한, 통근·통학여부와 장소, 이용교통수단, 종사자 지위, 산업, 직업, 근로장소, 혼인년월, 출생

생아수, 추가계획자녀수, 고령자생활비 원천(표본)

▷ 가구 : 가구구분, 사용방수, 주거시설 형태, 거주층, 난방시설, 점유형태, 주인가구 및 주택소유 여부(전수) 거주기간, 자동차 보유대수, 주차시설,

임차료(표본)

▷ 주택 : 거주지 종류 및 건물층수, 연건평, 대지면적, 총방수, 건축년도, 편의시설수(전수)

▷ 시도특성항목(충청남도) : 지역생활 여건 만족도



긴 세월의 역사 속에서 꽃 피어난 '시민' 이여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민(Citizen, Citizen)"이라는 말은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이상의 깊은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물론 애당초 이 말이 처음 생겨났을 때는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Civitas)에 사는 사람들을 뜻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당시 도시의 의미는 오늘날 지리학적 의미의 도시와는 달라서 도시보다는 차라리 국가라는 개념에 더 가깝다고 해야 하겠다. 즉 시민이라는 말은 일종의 고대 국가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로서 정확히 번역하자면 바로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국가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지는 일반인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대국가가 무너지고 더불어 시민이라는 말도 사라지게 되는데 그 이후 이 말은 1000여년 이상 동안 서양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았다. 물론 동양에서는 아예 이러한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르네상스 이후 인구 집중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도시가 생겨나기 시작하자 이와 더불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도시민의 의미로 시민이라는 말이 다시 등장하였다. 이 때의 시민은 지리적 의미로 농촌이 아닌 도시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뜻하였다.

도시는 산업혁명 이후 급속도로 발달하게 되는데

이는 후일 서양에 있어서 큰 정치적 변화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시민이라는 말은 18세기 프랑스 대혁명을 전후하여 다시 정치적 의미로 탈바꿈하였으며 시민은 거대한 정치 세력으로 자리 잡아 갔다. 이와 더불어 자유 민주주의 사상이 각광을 받았으며 시민은 정치의 주체로까지 부상되었다. 그래서 시민 개인의 권리가 중요시되고 인권 문제가 사회사상의 중심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곧 뒤이어 등장하는 국가주의에 의해 자유 민주주의는 절대국가에게 자리를 물려주었고 국가주의와 상업주의의 결합에 의한 국가자본주의의 거대한 힘에 눌려 시민은 더 이상 정치적인 의미를 지니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세계 2차 대전 후, 국가와 그들 속에 가려 있던 국민의 권리문제가 대두되면서 그를 대변하는 개념으로 다시 시민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의 시민이라는 개념은 보다 소극적인 것이었는데 교통 및 통신 수단의 발달로 사람들의 행동반경이 넓어지면서 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바뀌어나갔다. 특히 EU의 형성 과정에서 개별 국가의 주권이 EU 집행부에 부분적으로 양도되면서 국가라는 전통적 개념이 흔들리게 되자,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시민사회론 이었는데 이 시민 사회론의 주인공이 바로 시민인 것이다. 이는 곧 정

치적으로 지방 자치의 개념으로 이어지는데 오늘날 풀뿌리 민주주의론은 그러한 결실이라 하겠다.

따라서 시민이라는 말은 민주주의 이념 7가지 지방자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시민의 날 또한 그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5일 제11회 아산 시민의 날 행사가 시청 대강당에서 시작을 비롯하여 기차와 일바시미 및 공무원을 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사회 여러 분야에서 공로가 많은 다섯 사람들에게 아산시민 대상이 주어졌다.

아산시민대상,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상인가!

지금까지 거의 모두 표창은 왕조시대의 은혜론(Tokemae)에 입각하여 위로부터 주어졌 왔던 것임을 상기해 볼 때 아산시민대상은 그야말로 시민사의 전제가 주는 밑으로부터의 수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수상자는 우리 모두가 뽑은 자이며 우리 모두의 가치를 대변하는 자이라 하겠다. 동시에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시민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예라 하겠다.

아산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시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훌륭한 다섯 분의 수상자에게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제99회 임시회 개최

아산시의회에서는 2005. 10. 5부터 10. 14까지 10일 간의 의사일정으로 제99회 임시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기동안에는 현장방문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등의 의사일정으로 진행되었다.

□ 임시회에서 의안건접수 현황 (총무복지위원회)

아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아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2006년 공무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아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공무수면 대입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임시회에서 의안건접수 현황 (산업건설위원회)

아산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의 건

제9회 의원간담회 개최

2005. 9. 27(화)10:00 아산시의회에서는 제9회 의원
간담회를 의장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및 정수 계획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며,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간담회가 끝난후 도의원 1선거구와 2선거구로 나뉘어 토의가 진행되었다.

그 외에도 청사별관증축사업추진계획, 임시사무실

추가확보계획, 공유수면 매립 계획,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추진 계획 등의 집행부 안건 설명이 있었다.

또한 제9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져 비회
기중에도 지속적인 의정활동이 전개되었다.



현장방문

임시회 기간중 10. 6 ~ 10. 11일 4일간 지난 추
진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지역과 민원현황
및 주요현안사업장을 방문하여 수해복구 추진상황
과 각종 민원 및 현안사업에 대한 점검·분석을 통
하여 문제점을 도출해 나가고 의정활동 자료로 활
용하고자 현장방문을 실시하였다.



▲ 온양1동 노인복지회관 진입로 개설공사현장



▲ 도고면 수해현장



▲ 장존동 벼 건조 저장시설 현장



▲ 배방면 고속철도역 택시영업 인원현장

아산사랑, 시민4대 운동
참여해 주신분들

아산사랑, 시민4대 운동, 참여해
주신분들 시는 아산사랑 4대 시민운
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내고공 야산을 사랑하는 4대 시민 운동은 푸른 숲을 가꾸기 위한 ▲시민헌수 운동과 미래 인재 육성의 밑거름이 될 ▲장학금 모금 운동,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조성을 위한 ▲청결운동, 할머니들에게 의망을 심어주는 ▲학교 책보내기 운동으로 시민들의 참여 현황과 추진상황을 점검해 본다.

장학금 모금운동은 그동안 지속적
으로 운영되온 아산시내고양광악회
를 흡수 확대하는 아산시 미래장학
회 설립을 위한 2차 발기인대회를
추진하였으며 학교책보내기 운동은
시민 뿐만 아니라 향우회 등의 적극
적인 참여도 소기의 목적을 거두면
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정결운동은 공무원과 기관, 단체, 시민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대청소 운동이 매달 2번째 금요일에 계속하여 운영 되고 있으며 시민연수 운동은 아산시 푸른도시가꾸기범시민추진위원회가 구성, 운영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산시청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와 아산 사랑실천이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아니냐며 4대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살기 좋은 아산 건설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시민헌수운동참여자 명단

[illegible][illegible][illegible]

아산 농·축산물 좋을씨구 소비자, 생산자 어깨춤 덩실

농·축산물 한마당 축제 신정호에서 소비자와 함께



▲ 지난 해 축제중 허수아비 만들기와 두부 만들기



수농업인 시장 등 의식행사와 읍면 별 노래자랑 등 생산자 중심의 축제로 준비했으며 11월 2일에는 소비자의 날로 운영된다. 11월 2일 소비자의 날에는 소비자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킬 만한 농·

수림 마당을 마련하여 즐겁고 신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최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입농산물과 국산농산물의 비교 전시도 이뤄지며 추어의 행위기 체험, 마당극 공연, 풍바공연, 에어로빅공연 등으로 생산 활동에 참여했던 생산자의 노력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결실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행사를 통해 아산 농·축산물의 적극적인 홍보로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면서 농업인들의 정보 교환 및 결속을 도모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 한해 탐과 정성으로 가꾸어온 농산물과 축산물을 한자리에 모아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며 맛있는 음식으로 민들이 시작도 한다.

11월 1일과 2일 양 이틀간 아산시농업인단체협의회 주체로 신정호 국민관광단지에서 '아산농업! 새로운 도전과 희망'이라는 주제로 농업인, 도시소비

자, 관내소비자 등 4,000여명이 참석하는 아산시 농·축산물 한마당 축제를 개최한다.

특히 도시소비자 800여명과 관내소비자 2,0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축제는 첫날을 농업인의 날로 하여 축하공연과 농업대상 시상, 우

축산물의 판매, 전시, 시식코너가 풍성하게 운영되고 새싹 기르기, 야생화심기, 포도떡 만들기 등의 다양한 체험행사와 허수아비 만들기, 풍과 버타작행사, 아산 맑은 쌀 지게지기 등 어

지난 해 준수승, 올해의 목표는?

이달 27일부터 30일까지 금산에서 개최

제57회 충남도민체육전이 이달 27일부터 30일까지 금산군 일원에서 개최된다. 지난해 시민들의 힘을 모아 준수승을 한 우리 시로 17개 종목에 410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여해 27일 금산 학생체육관에서 남·녀 초등부 배구경기를 시작으로 육상, 배드민턴, 축구, 테니스 등 17개종목의 경기가 펼쳐질 예정이다.

지난해 준수승을 달성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던 배드민턴과 볼링, 테니스 종목이 올해에도 강한 우승 후보로 점쳐지고 있고 검도와 태권도 복싱, 궁도

등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기대에 못 미쳤던 수영도 그동안 꾸준한 기술 연마와 훈련으로 올해에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하며 시민들의 뜨거운 응원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아산시 체육회는 모든 선수들이 아산의 명예를 걸고 필승의 각오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참가 선수를 격려하고 결승을 다짐하는 결단식을 27일 11시 시청 대강당에서 가질 예정이다.

경기일정표

종목	종별	계제	10.27	10.28	10.29	10.30	경기장소
육상	전남별		10:00~16:30	10:00~14:00			금산종합운동장
수영	전남별		○	○			금산학생수영장
축구	제1일본부		14:30~	10:30~			한국타이어운동장
	제2일본부				14:30~16:00		금산종합운동장
테니스	남일부		11:00~	9:00~	10:00~		금산종합운동장 테니스코트제1코트
	여일부		11:00~	9:00~	10:00~		금산종합운동장 테니스코트제2코트
배구	남초	9:00	9:00~	○			금산학생체육관
	여초	9:00	9:00~	○			금산신원고등학교체육관
배구	남일부		9:00~	9:00~	○		금산학생체육관
	여일부		9:00~	9:00~	○		금산신원고등학교체육관
탁구	남초			14:00~	9:00~		
	여초			16:00~	9:00~		
배드민턴	남일부			12:00~	10:00~		미남대체육수련원체육관
	초등부	10:27		10:00~	10:00~		
세름	초등부	17:30		10:00~	10:00~		금산중앙초등학교운동장
	일반부			9:00~17:00	9:00~17:00	9:00~13:00	충주관
궁도	남일부			13:00~	11:00~	10:00~	금산중앙초등학교체육관
	여일부			15:00~			
태권도	초등부	10:27					
	중등부	19:00					
복싱	초등부	10:27	12:00~	12:00~	12:00~	12:00~	중부대학교체육관
	중등부	10:27	12:00~	12:00~	12:00~	12:00~	중부대학교체육관
요트	초등부	10:27	12:00~	12:00~	12:00~	12:00~	중부대학교체육관
	중등부	10:27	12:00~	12:00~	12:00~	12:00~	중부대학교체육관
역도	초등부	10:27	12:00~	12:00~	12:00~	12:00~	중부대학교체육관
	중등부	10:27	12:00~	12:00~	12:00~	12:00~	중부대학교체육관

일! 일! 일자리, 사람! 사람! 사람들

2005 취업박람회 10월 26일 호서대학교에서



시는 호서대학교와 손을 잡고 '좋은 사람, 좋은 일터 아산시가 함께 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찾아 주고, 구인업체에게 인력채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2005 취업박람회를 10월 26일 호서대학교에서 개최한다.

이번 취업박람회에는 구인·구직자간의 현장 면접 및 채용과 취업 알선, 각종 자격시험 및 직업훈련, 실업대책 안내, 실업자 및 기업체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취업박람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구직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증명사진 2매를 준비하고 행사 당일 취업바라바자를 찾아 희망업체 면접에 응시하면 되며 참가비용은 없다.

시는 지난해 47개 업체가 참여하여 100여명의 일자리를 연결해 구직자와 구인 업체로부터 큰 호응을 불러 일으켰던 취업박람회에 올해에도 50여개 업체가 참여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업난을 해소 할 수 있는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KBS대전방송총국과 충청남도가 후원하는 이번 취업박람회는 12시 15분부터 20여분간 생중계 될 예정이다. (문의: 아산시청 지역경제과 540-2047, 2038)

수능만점! 아산시인터넷 수능방송과 함께

서울 강남구청과 협조체제로 수능방송 시작



시는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학습기회를 균등한 제공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수능방송 사이트를 구축 이달 24일부터 운영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입시경쟁으로 인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해소하면서 관내 고등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수능정보를 제공하고자 서울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을 이용하여 별도의 홈페이지를 제작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축된 인터넷 수능방송을 이용하려면 <http://suneung.asan.go.kr>에 접속하여 1만원의 연회비(가입년도의 12월 31일까지)로 유료회원 등록 한 후 수강 할 수 있다. 또한 이번엔 개설되는 강좌는 6개영역(한어, 수리, 외국어, 사회탐구, 과학탐구, 학업법)에 163개 강좌를 서울 강남권 수능전문학원 강사가 맡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관내지역 고등학생들에게 수능정보의 제공으로 학습효과를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가계 부담을 줄이는데로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0월은 어르신 섬김의 달, 위안잔치 등 행사 꾸집

대한노인회, 봉사단체 등 기념행사와 잔치 열려

지난 6일 시민체육관에서는 대한노인회 아산시 지회에서 초청한 지역 어르신 2,000여명이 국악공연도 보고 찬을 흥얼거리며 가지고 있던 장기를 맘껏 밟



▲ 10월 6일 노인의 날 기념식

위하여 꾸집한 상도 받는 신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9번째 맞는 노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로 노인복지사업에 기여한 모범노인과 노인복지에 기여한 시민을 표창하고 위로 및 격려 하므로서 우리 민속의 전통적인 미풍양속, 경로효친사상을 시민들에게 전파, 확산하는 계기도 마련했다.

또한 9일에는 지역의 봉사단체 아산청년회에서 경로잔치를 준비하여 10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평양예술단의 국악과 노래공연이 기분을 들뜨게 했고 손자, 손녀집은 중·고등학생들의 봉사활동과 회원들이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물로 행사를 즐겼다.

이와 함께 탕정초등학교에서 선문대학교와 탕정종합사회복지관이 은빛 축제를 개최하기도 해 우리지역의 경로효친 정신이 시민들 마음에 깊게 자리 잡고 있으며 사회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사진으로 느끼는 아산



▲ 서울에서 왔어요. (서대문구 농촌체험)

참신한 아이디어, 미래 아산의 청사진

아산도시대전 56개 작품으로 대성황, 수상작 전시회 가저

총 56개 작품으로(도시계획·개발부문 37개, 관광개발부문 19개), 28작품 선정(도시계획·개발부문 21개, 관광개발부문 7개)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에 적극반영

시는 시에인사재를 선도하는 아산인권의 핵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전국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제2회 아산도시대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수상작에 대한 작품 전시회를 가졌다.

스마트 도시건설을 지향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대학생을 대상으로 ▲신도시개발에 따른 구도심 활성화 방안, ▲첨단도시로의 아산시 발전방안, ▲신정호 국민관광지 조성계획, ▲우천지역 관광활성화 방안 등 도시계획·개발 분야와 관광개발 분야를 주제로 한 아산도시대전작품을 공모한 결과 전국 대학에서 56개의 작품이 응모했다.

시는 응모된 작품에 대해서 지난 10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9명으로 구성된 심

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작 28점을 선정했다.

영예의 대상은 도시계획·개발부문의 "아산구도심 활성화 방안(Spa in City in spa)"이란 주제로 출품된 한양대학교(도시계획학원 도시건축설계학과 이혜일의 4명)가, 도시계획·개발 분야의 금상에 경원대학교 도시계획학과(국운상의 4명)의 "온양구도심 활성화(Symphony)", 관광개발 분야의 금상은 중앙대학교 도시공학과 김성은작 "아산시 신정호유원지 개발계획(천석고함)"의 주제로 출품된 작품이 선정됐으며, 우리고장 선문대학교, 순천향대학교 학생의 출품작도 다수 은상, 동상, 장려상을 차지했다.

시는 앞으로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시청에서 전시하고, 온양온천역사, 국민생활관, 고속철도역사 등에서 순회, 전시할 계획이며, 수상작품들을 묶어 작품집을 발간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계획에 적극 반영 활용할 계획이다.



▲ 오! 아산의 미래계획이군요. (미 랜싱시 방문단)



▲ 세계는 하나,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바로알기 (도자기체험)



▲ 아산에 가을의 길이 있습니다. (은행나무길)



읍면동 소식

흥겨운 가락과 함께한 어르신 잔치 한 마당

지난 7일(금) 토비스 콘도에서 도고면 남, 녀 새마을 지도자협의회(회장 김진섭, 황덕순)에서 주관하고 도고면 이장협의회와 이산 장례식장에서 협찬한 도고면 경로잔치가 열렸다.

도고면 남, 녀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서 핵가족화 시대에 점점 퇴색해 가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을 확산하고 어르신들의 고마움을 되새기 교차 마련되었다.

고르지 못한 일기로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내빈과 어르신들이 참석하시어 행사장은 잔치 집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날 행사에는 아산시 초등학교 음악경연대회 사물놀이부문에서 4년 연속 금상을 수상한 도고초등학교 사물놀이부의 신나는 사물놀이 공연과 도고온천 초등학교 스포츠댄스부의 댄스온 공연, 2005 설화예술제 일반종류 겨루기 대회서 장려상을 받은 이산 도고면 황송 풍물패(단장 진성분)의 흥겨운 우리가락 한마당이 펼쳐져 어르신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또한 금강산 예술단의 공연이 흥을 돋우면서 잔치 열기를 더욱 고조시켰고 장기자랑 코너도 준비하여 어르신들은 가지고 있던 자기 자랑과 노래습씨를 뽐내면서 굿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즐겁고 신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관내 곳곳에 현수막을 게첨하여 행사시간과 장소를 알리는 등 각 마을 이장, 새마을 지도자(부녀회

장), 노인회장들의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어르신들이 참석하여 행사의 참맛을 싣히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신동리 한 어르신은 "풍물패와 함께 덩실덩실 춤도 추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너무나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오늘과 같은 날이 자주 있으면 좋겠다."며 하루 행사를 아쉬워 했다.

(도고 / 주부명예기자 이인자)

내 고장의 자랑, 송남중학교



▲ 원어민 교육시간에

송남중학교는 아산시 중심가에서 광주 방향으로 대략 9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주변의 경관이 아름답고, 교정은 부지런하신 교장선생님의 손길 덕분에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 잘 가꾸어진 야생화들로 교정은 한층 싱그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이 학교는 1971년에 개교한 공립중학교로서, 선생님들과 졸업생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좀 더 훌륭한 배움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현재 4학년 88명의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 분위기 속에서 미래의 세계를 향해 필수 소중함 꿈을 알차게 가꾸어 가고 있다. 교직원들은 학생들 저마다 가지고 있는 소질을 찾아내고 개발하여 다가오는 미래 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유능하고 도덕적인 학생들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향하여 진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사랑과 도전으로 미래를 여는 배움의 전당 송남중

학교'가 규모는 작지만 내적으로는 좀 더 충실한 학교로 발전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학생들과 직원들의 공동된 자부심의 근원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

'교육이 미래를 가는 가치 창조 과정'이라는 정의는 교장선생님의 교육신념이다. '학생들의 기초, 기본 학력증진과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통한 바른 인성함양'과 '교직원간의 인화단결 및 행동으로 가르치는 존경받는 스승상 구현'이란 목표는 학교장의 확고한 학교경영의 지를 나타내는 명제이다.

학교는 지역사회와 교육청의 우호적 지원으로 현대적 편의시설들을 완벽하게 되었다. 지난 여름방학동안 각 교실 냉난방 시설을 갖추었고, 도서관은 1,000만 원 상당의 도서를 새로 구입하였다. 교과별 전담교실의 교실환경 구성은 교과별 전문성을 도모하고 수업의 질을 높여 학생들의 학력을 증진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본교에서는 효과적인 수업을 위하여 다음 네 가지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첫째, 원어민 강사를 다수 초빙하여(3명) 전교생에게 무학년제로 각자의 수준에 맞는 외국어 수업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 생활영어 능력 신장에 힘쓴다.

둘째, 교과별 전담교실을 운영하여 교과별 전문성과 수업의 질을 높여 학력증진에 기여한다.

셋째, 충실한 교육과정의 운영, 적절한 교육방송(EBS)의 이용, 실용적 특기 적성활동의 실시 등을 통하여 기초 기본 학력을 향상시킨다.

넷째, 가이름, 컴퓨터, 한자, 미술, 배드민턴, 사물놀이 등 동아리 활동반을 편성 운영하여 학생들의 취미와 특기 적성 개발에 힘쓴다.

특히 꿈을 심어주는 원어민 생활영어교육은 미래사회를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진로탐색 교육으로서 앞으로 지속적인 추진 사업으로서 송남군의 브랜드로 자리 잡아 지구촌의 다양한 정보 활용능력으로 키워갈 것이다.

끝으로 우리 학교의 구성원들 모두가 자발적이고 협조적으로 미래를 위한 교육에 대처하고 있다는 자부심은 송남중학교 발전의 기본적 원동력이라고 우리들 자신은 믿고 있으며, 더불어 송남중학교의 이러한 노력에 이산교육 발전에 한 계기로 약용하기를 꾸리는 기대하고 있다.

(주부명예기자 박명숙)



유관기관 소식

119서비스 이렇게 달라집니다

119구조대 및 구급대는 진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구조·구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19구조대는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는 병원보다 환자의 치료에 적합하고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119서비스를 이용하신 분은 전국 어느 소방서에서나 『구조·구급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구조·응급요청 거절대상

- 단순 분개량, 단순 시설물 안전조치 및 장애물 제거
- 단순 동물처리·포획 및 구조
- 가정폭력·절도 등 단순 범죄사건
- 단순 주민생활 불편해소 민원 등
- 협일 등 생체정후가 안정된 티박상 환자
- 단순 차통환자
- 단순 감기환자(섭씨 38도 이상의 고열이 있거나 호흡곤란이 동반되는 경우는 제외)
- 술에 취한 자(강한 자극에도 의식의 회복이 없거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요청자

-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 병환자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요청자
- 구급대원에게 폭력행위를 시도하는 환자

□ 장애우를 위한 『119안전신고센터』운영 ▶ 『119안전신고센터』란 무엇인가?

장애우 중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도움이 필요할 경우 119에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이 운영하고 있는 신고센터입니다.

▶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① 인터넷 : <http://www.119.go.kr> → 「신고하기」 클릭
- ② 팩스 : 1544-9119
- ③ 119문자신고 접수시스템(SMS) : 휴대폰으로 문자전송
- ④ 클릭형 119인터넷 신고 : 위 사이트에서 프로그램을 다운(down) 받아서 컴퓨터에 설치한 후 생성된 아이콘만 클릭하면 신고가능

▶ 현장에 도착한 구조·구급대원과는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여야 하나요?

소방서에서는 구급대원에게 수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현장에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필담(筆談)을 통한 의사소통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우는 119에 특별한 고객입니다."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안내

□ 현금영수증제도란?

▶ 현금영수증제도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직접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 건당 5,000원 이상 현금결제

□ 이용시 혜택

▶ 근로소득자 및 부양가족(배우자/청소년)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증빙내역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복권에 의해 보상이 지급됩니다.





아산시민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안 내 · 알 림



공유토지분할신청 접수합니다

- 시행기간 : 2004. 4. 1~2006. 12. 31(2년 9월)
- 대상토지 :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
- 신청방법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신청서 교부요청(아산시 토지관리과)
- 증빙서류
 - 토지등기부등본
 -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서식 제공)
 -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건물분재산세와 과세대장등본·납부증명서 또는 영수증, 그 밖에 토지의 점유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인의 내용을 표시하는 명세서(서식 제공)
 - 공유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분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서식 제공)

주민민원발급기 이용 안내

- 설치장소 : 염치읍사무소, 배방면사무소, 읍봉농협지소, 둔포면사무소, 도고면사무소, 온양1동사무소, 온양2동사무소, 행정서비스센터
- 가동시간 : 평일 - 09:00~21:00
토요일요일 - 09:00~13:00
- 발급서류 :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건설기계등록원부, 기초생활수급자증명, 농지원부, 병적증명서, 의료급여증명,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 집합건물대지권등록부, 건축물대장, 과세증명서

여성건강운동교실 운영안내

- 일시 : 10월 18일~28일 화, 목, 금 오전10시~11시
- 대상 : 여성
- 내용
 - 등록방법 : 전화 및 직접접수
 - 요실금 : 교육 및 골바근육강화운동 실시
 - 골다공증 : 교육 및 골다공증 관리 및 예방운동 실시
 - 요통 : 교육 및 요통관리 및 예방운동 시기
- 문의전화 : 건강증진 담당(☎540-2541)

도로점용(굴착)사업계획

시행업체	굴착구	위 치	사업규모	기간
한국도로공사	아산국제공항	송악면 역촌리-경당리(시도7호선)	2,996	06.10-07.12
충 부 도시기 구(주)	도개소간 개설	모종동 오양회교앞-한신빌라	200	06.10-06.12
		문현동 중소기업은행-순복음 문천교회 앞	450	
		방축동 오성하이츠 앞	200	
		영인면 백석포사거리-경동세리택 앞	1,800	
		용화동 용화초등학교 앞	130	
한국도로공사	2차선로변	온천동 온천마을-삼평리(시도7호선)	30	06.10-06.12
		원남사거리-용동삼거리-포리교 앞	3,500	
한국도로공사	2차선로변	대미동 앞 모종동 주공아파트	850	06.10-06.12
한국도로공사	2차선로변	관곡교 앞 대로1-1호	53	06.10-06.12

바퀴달린 놀이기구 안전하게 즐기기

- ▷ 헬멧, 팔꿈치 보호대, 무릎 보호대, 손목 보호대와 장갑 등 모든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 ▷ 초보자의 경우 반드시 안전하게 정지하는 방법과 넘어지는 방법 등 기초적인 교육을 받은 후 이용하도록 하고 본인의 실력을 넘어서는 행동이나 가속을 하지 않는다.
- ▷ 되도록 바퀴달린 놀이기구 전용도로에서 타도록 하고, 전용도로에 표시된 방향으로만 타도록 하여 충돌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 ▷ 차량 및 자전거 등의 통행이 없고 굴곡이 심하지 않은 평탄한 표면의 장소에서 탄다.
- ▷ 아간에는 가능한 한 인라인 스케이트 등을 타지 않는다.
- ▷ 손에 집을 들거나 귀에 이어폰을 끼는 등 순간적으로 위험에 대처할 수 없는 자세를 피한다.
- ▷ 보행자 및 애원견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여권 이제 이렇게 발급됩니다

- 9월 30일(금)부터 여권발급 방식 변경
- 사진부착식에서 사진전사식으로
 - 사진 바탕은 흰색, 얼굴 하늘색, 밝은 베이지색, 밝은 회색 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한다.
 - 눈은 흰 상태로 정면을 응시하고 입은 닫은 상태여야 한다.
 - 여권사진이 변질될 우려가 있는 축색사진이나 질이 떨어진 디지털 사진은 고품질, 고해상도로 프린트하여야 한다.
- 여권유효기간이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확대
- 여권유효기간 연장제도 폐지
- 동반자(8세미만) 부모에 병기제도 폐지 (1인 1여권)
- 여권발급 신청서 작성 간소화 (최종학력, 주요경력, 가족사항 등 삭제)
- 여권사양 변경 (여권면수 증면 42면 → 48면)
- 여권발급수수료

민원명	수수료(원)				대 상
	개	영수필증	국외귀국		
일반여권 (복수)	10년	55,000	40,000	15,000	- 18세이상 희망자
		47,000	35,000	12,000	- 18세이상 희망자
	5년	15,000	15,000		- 8-18세미만
					- 기간연장 재발급
(단수)	5년 미만	15,000	15,000		- 잔여기간 부여 재발급
					- 국외여행사기대상자
기재사항 변경	1년	20,000	15,000	5,000	- 상환보증금과
					- 1회여행만 가능
기재사항 변경	5,000	5,000			- 동반자녀 분리
					- 사증만 추가(1회)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안내

- 기간 : 무료 - 2005. 10. 25 ~ 12. 10
자비 - 2005. 11. 1 ~ 12. 10
- 장 소 : 아산시보건소, 각 보건지소
- 대 상 : 무료 - 65세이상 노약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1, 2, 3급 / 유료 - 12개월이상 ~ 성인
- 접종방법 및 금액
 - 36개월 이상 ~ 성인 : 1회 접종 1ml 4,200원
 - 12개월 이상 ~ 36개월미만 : 2회 접종 0.25ml 2,100원
- 우선접종 대상자
 - 폐 질환자, 심장질환자,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 수용자
 - 65세 이상의 노인 및 의료인, 50세~64세 인구(신규)
 - 12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자
 - 사스, 소위 인플루엔자 대유행과 증사자 및 닭, 오리 농장관련 업계 종사자 등

분리수거 꼭 지켜야 선진시민

- 근거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7조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훈령 제2002-343호)
- 분리수거의무 대상시설
 - 다중이용시설 (역사, 터미널, 휴게소, 공원, 유원지 등)
 - 다량배출사업장 (대형입주용빌딩, 콘도·호텔 등 대형숙박업소, 대형쇼핑센터·상가, 학교, 병원, 공장 등)
- 대상시설 기준
 -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 폐기물을 1일평균 300kg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t이상 배출하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 분리수거의무 대상시설의 이행사항
 - 분리수집장소 및 품목별용기(4종이상)를 설치하여 분리배출
 - 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의 혼합배출 금지
 - 분리수집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적정처리 할 것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집 안내·계도 실시 할 것
 - 용기에 배출된 재활용품이나 선별, 분리된 재활용품이 무단방치 등으로 폐기물화되거나 품질이 악화되는지 여부 등 확인

'청소년전화 1388' 통합에 따른 안내

- 청소년의 고민을 상담하고 어려움을 도와주는 전화가 통합·운영될 예정입니다.
- 9월부터 청소년전화는 (국번없이)1388번을 걸어서 이용됩니다. 청소년과 관련된 상담, 긴급구조, 유해환경 신고 등을 원할 때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전화란?
 - 청소년이 어려운 일이나 고민이 있을 때 이용하는 전화로서 친절한 전문상담가가 적극적으로 상담을 해줍니다.
 - 청소년이 폭력, 성매매 등 위험에 처했을 때 신고하는 전화입니다. 그리고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긴급구조팀이 출동하여 구조 및 보호를 합니다.
 - 청소년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하여 조사한 후 조치합니다.
- 청소년전화의 연결은?
 - 청소년상담원, 청소년(종합)상담센터, 청소년지원센터 등 전국 각곳에 132개소의 센터가 청소년전화 1388을 받기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 덜컥된 점은 무엇인가요?
 - 이전에는 1388은 긴급전화 및 신고전화, 1588-0924는 가출신고, 상담전화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청소년 위원회에서 이 두 전화를 일원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청소년과 관련된 어려움은 모두 1388 하나로 통화할 수 있습니다.
 - 2006년부터는 1388을 통해 연결된 청소년들에게 전문 상담원이 직접 찾아가서 상담 또는 지원을 제공하고 학교 및 각종 관계 시설을 원스톱으로 연결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외암 민속마을에서 짚과 풀이 축제를 만든다

이달 21일부터 23일까지, 사람과 전통문화의 어울림을 찾아

현대무대에 밀려 점차 사라져 가는 민속마을을 중심의 전통문화 발굴과 재현을 통한 보존 및 민속마을 소득기반 조성하고 주5일 근무 제

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전통문화 재현을 통한 가족단위 건전 여가선용 및 관광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짚과 풀을 소재로 외암마을에서 축제를 연다.

이달 21일부터 23일까지 사람과 전통 민속 문화의 어울림 한마당이라는 주제로 의식행사와 재현행사, 전시행사, 체험행사를 전개하고 짚과 풀로 만들어진 공예품을 공모하고, 시조 백일장에서 참가자들은 가지고 있던 숨씨도 뽐 낼 수 있다.

또한 풍물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등의 초청공연이 외암마을에 울려 퍼지며 외국 의 민속공연(태극, 일본)도 축제를 즐기면서 색다른 맛을 느껴 볼 만 하다.

특히 22일과 23일 양 이틀은 11:00부터 전통혼례가 민

속과에서 재현되며 민속관-주무대-전시 체험장-참관대 코스로 상여행렬을 재현하여 현대인들이 보기 힘든 발인, 행상, 만장 재현으로 구성된 만가들 함께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특별한 전통체험도 다양하게 준비 돼 있다. 아가솟대 만들기, 추수체험, 호패 만들기, 다식 만들기 등 가족단위의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장소별 프로그램 참고)



▲ 예전엔 이렇게 했어요?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짚과 풀을 손으로 만지면서 자연을 느끼고 선조들의 지혜를 배우는 소중한 시간을 내 인생의 한 페이지에 담아 보자.

행사 프로그램

- 주무대 : 개막식, 시립합창단공연, 사물놀이, 풍물놀이, 울림공연, 민속국악공연, 실버악단공연, 충남국악단공연, 충남국악관현악단공연, 시조문학의 밤, 남사당패공연, 외국민속공연(일본, 중국), 솟음민속공연, 초청가수공연, 폐막식
- 주전시관 : 채소새끼 체험, 짚풀공예품전시 및 체험, 각종공예품전시(맥간, 왕골, 족세, 덩덩이, 한지, 지승공예), 농경유물전시, 곤충체험, 어릴적 풍경, 이기공예체험, 사공공전, 척보(활판)농원전시
- 체험장 : 장승만들기, 호패만들기, 한지부채꾸미기, 흙집만들기, 황토염색체험, 나무곤충만들기, 솟대만들기, 아가솟대꾸미기, 도자기공예전시체험, 풀잎공예, 동화속의 주인공 되어보기, 허수아비만들기, 가훈쓰기, 다식만들기, 외국문화전시관, 연날리기, 외국농산물비교전시
- 특산품판매장 : 아산쌀, 연꽃염색 등 아산시 특산물
- 민속관 : 전통혼례, 떡매치기, 민속사진전시, 다듬이질, 민속장날재현
- 마을내행사 : 상여행렬재현, 조가지뭉개이기, 봄바 체험, 전통민속주전시 및 시음회, 시조백일장, 추수체험(벼베기-넋, 타작-홀데, 호호기, 절구), 민속놀이(그네, 널, 제기, 투호, 윷놀이), 조선전터, 불원위제사(강당골)

들녘엔 오곡 풍성, 마음엔 그윽한藝香 가득

맹사성축제 등 10월 한달 내내 문화행사 줄이어



▲ 성모복지원 리듬합주단 길거리 공연

결실의 계절 10월은 들 가득 곡식이 무르익고 더불어 풍성한 문화행사로 마음 또한 여유로움이 번져나는 계절이다.

아산의 10월은 음악과 시 그리고 각종 전시회, 공연들로 마치 사진첩이 하나의 종합예술공간인 같다.

10월 5일 가곡유지력 「책키&북키」공연을 필두로 「고블 서예대전」전시회가 울림작가기념관에서 있었으며 14, 15일은 우리나라의 큰 인물이며 아산이 자랑하는 청백리 맹사성을 추모하고 정신을 이어 받고자 마련한 맹정승 축제가 열려 고블 맹사성 정신 체험하기, 시민노래자랑 등이 전개됐다.

또한 연륜 만큼 성숙해지는 은양은현여성합창단 단풍음악회가 여의적 특설 무대에서 펼쳐지면서 인근 밀집돼 있는 아파트 주민들과 주위 주민들로

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고 17일 국민생활관 공연장에서는 특별한 열린음악회가 개최된다.

관내 성모복지원 생활인과 직원, 봉사자 생활인 부모님들이 모여 그동안 열심히 갈고 닦은 성모복지원 리듬합주단 공연으로 참가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 공연에는 버금사랑회, 아산시립합창단, 실버밴드의 협연과 라이브 공연이 더해져 함께한 사람들의 감흥을 한층 높여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시작에도 20일 오페라 총리가 하이리니 트 공연이 충청오페라단 주최로 화려한 막을 올리며, 21일에는 한국음악협회 아산시지부가 준비한 아산시민을 위한 오케스트라 공연, 25일에는 시립합창단이 11번째 정기공연으로 시민들과 국민생활관에서 만난다.

또한 29일 토요일에는 국민생활관 극장에서 희귀 난치병환자 후원기금 마련을 위한 「희망 비너스」공연이 은양사랑회, 아산시청년연합회 주관으로 열린다.

가을이 무르익는 10월, 시민들은 가을걷이를 마무리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오페라부터 오케스트라 공연, 합창단 공연, 서예, 연극 등 아산에 흐르는 여향에 흠뻑 젖어 볼 만 하다.

2005년 10월을 소중히 추억 만들기 위해 내 시간을 투자하는 가을로 만들어 보자.

아산 만평

정서현

